[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14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 www.jri.re.kr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10.14~2026.10.2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공항(갈등), 평가(말산업), 미래(재정), 사무감사(성과), 에너지(전환)
경제·관광	관광객(내국인), 축제(가을), 창업(청년), 여행(일본), 농가(농업)
지역·사회	차량(도로), 연구(공동), 학생(보호), 병원(이송), 전국체육대회(선수)

※ 분석 기간 : 26.10.14.~26.10.20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공항(갈등)	-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 의결 - 찬성 측 불참·소송 예고…대표성 논란 확산 - 제2공항·현 공항 역할 분담 협의 착수
	평가(말산업)	- 말산업특구 평가 12년 연속 전국 1위 - 국감서 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 촉구 - 문화체육시설 재위탁 평가기준 개편 요구
	미래(재정)	-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지방교부세 보장 촉구 - 미래 성장동력 AI데이터센터 재정 검증 - 교육청 국감, 교육재정 성과 공개·미래교육 쟁점
	사무감사(성과)	- 제13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종료 - ICC 지난해 40억 적자·올해 목표 하향 - 기업유치 보조금 3년간 자체 수혜 '0'
	에너지(전환)	- 분산에너지 특화 공모 연속 선정…국비 98억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유령 센터' 전락 지적 - 국회 기후위에 에너지전환 제도개선 건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내국인)	- 내국인 관광객 감소 확대…씀씀이도 위축 - 롯데관광개발 크루즈 외국인 유치 10만명 돌파 - 전국체전 특수 기대에도 하늘길 좁아 관광객 감소
	축제(가을)	- 탑동 '섬夜시즌' 1만5000명 몰려 성료 - 새별오름 도새기축제에 5만여 명 방문 - 8개 마을 잇는 제10회 제주밭담축제 개막
	창업(청년)	- 2차 '모두의 창업' 제주서 1517건 도전 - 제주 스타트업 4곳 팁스 동시 선정 - 공무원연금공단, 24일 제주청년 페스타
	여행(일본)	- 일본 사가·도쿄서 치유·걷기여행 홍보 - 제주공항 국제선 300만명 돌파…일본 노선 급증 - 인천 송도 제주관광 팝업에 3만명 방문
	농가(농업)	- 레드향 열과 피해 급증…보험 가입 3.6배 - 'J-농정자문위' 출범…비전 2035 준비 - 제주시, 영세·청년 농가 경영부담 완화 지원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차량(도로)	- 평화로 차량 12대 연쇄 추돌…16명 부상 - 5·16도로 3중 충돌·강풍 나무 전도 잇따라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5대 추가 설치
	연구(공동)	- 제주 용암 사이 붉은 실트층, 황사 기원 규명 - 해양바이오 활용 파킨슨병 공동연구 추진 - 제주대-인하대 협정…AI·우주항공 공동연구
	학생(보호)	- 영주고 공사 피해, 행감·교총서 대책 촉구 - 교육활동 보호·위기학생 지원, 공통 과제로 - 학생선수 234명 전국체전 출전…안전 지원
	병원(이송)	- 체전 참가 감독 이송 중 심정지…응급처치로 회복 - 추자·우도·해상 응급환자 이송 잇따라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앞두고 업계 난색
	전국체육대회(선수)	- 제107회 전국체전 12년 만에 제주서 개막 - 개막일 제주공항 항공편 무더기 지연 논란 - 선수단 식중독 신속검사·경기력 현장 지원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10월 14일~10월 2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97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9건, 경제・관광 182건, 지역・사회 406건임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공항(갈등), 평가(말산업), 미래(재정), 사무감사(성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공항 (갈등)**	-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 의결**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4일 지난달 심사 보류했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4명 내외와 조정위원 7명, 관계공무원 2명 내외 등 13명 내외로 이달 중 출범할 예정임. · 협의회는 사업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정해 2월 도지사에게 전달하며, 3~5월 정보 제공과 6월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별도 운영함.

정치·행정	공항 (갈등)	**- 찬성 측 불참·소송 예고…대표성 논란 확산** ·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건설추진위원회는 법정 절차를 무력화한다며 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혔고, 오병관 범도민추진위 회장은 의견수렴 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예고했으며, 강효민 주민대표는 16일 감사원 감사 요청 방침을 밝힘. ·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협의회 구성 중단과 '제2공항 조속추진단' 구성을 촉구했고, 15일 행감에서는 찬성 측 불참 시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법률 자문 7명 중 2명이 반대, 2명이 조건부 의견을 낸 사실이 제기됨. **- 제2공항·현 공항 역할 분담 협의 착수** ·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15일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는 2024년 9월 고시된 기본계획의 후속 절차로 고시 2년 만에 공식 협의가 본격화됨. ·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현 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2019년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는 현 공항이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를 맡는 안이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유보됐고, 국토부는 실시설계 용역에서 수요를 재산정 중임.
	평가 (말산업)	**- 말산업특구 평가 12년 연속 전국 1위** ·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말산업특구 진흥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제주·경기·경북·전북 등 4개 특구 지자체 중 최고점을 받아 2014년 제1호 특구 지정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지키고 2027년도 국비 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함. · 확보한 국비는 우수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수말 도입과 공공승마시설 개보수에 투입될 예정이며, 도는 이번 결과를 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의 핵심 명분으로 삼아 범도민 유치 운동본부, 국회와 협력해 대정부 설득을 강화할 방침임. **- 국감서 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 촉구** · 문대림 의원은 16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주가 국내 말 사육의 약 절반과 경주마 생산의 91%를 담당하고 정주 여건도 갖췄다며 본사 이전 최적지는 제주라고 강조했고,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힘. · 김성범 의원이 20일 공개한 서면답변에서 마사회는 제주를 경쟁력 있는 후보지 중 하나로 인정했으나, 이전 장단점이나 필요조건을 검토한 바 없고 제주도와 후속 협의도 없었으며 정부가 이전지를 지정해 자체 검토의 실효성이 적다고 답함. **- 문화체육시설 재위탁 평가기준 개편 요구** · 한동훈 의원은 16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2023년 16억원에서 2026년 57억원으로 3.5배 늘었지만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은 목표 대비 58~72%, 프로그램은 목표 41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함. · 한 의원은 정해진 위탁금 범위에서 고정이윤을 취하는 구조가 적극적 운영 유인을 떨어뜨린다며 8개소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목표 달성률, 주민요구 반영도, 시설 활용도 등 3대 평가기준을 재선정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함.

정치·행정	미래 (재정)	-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지방교부세 보장 촉구** · 위성곤 지사는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해 미래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을 요구함. · 정부가 약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선공제하면 제주 교부세가 약 6000억원 줄 것으로 도가 추산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약 9000억원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 공개를 촉구함. - **미래 성장동력 AI데이터센터 재정 검증** · 강명균 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55억원을 들일 0.3㎿ 그린 AI데이터센터 실증과 40㎿ 본사업은 설비용량이 약 133배 차이 나 실증만으로 안정적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량적 평가 기준과 인력 양성을 주문함. · 김기환 위원장은 20일 '제주권 AX 대전환 PoC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국비 지원 없이 도비 22억원을 전액 투입하면서 당초 구축 목적인 바이오 분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비 확보 방안과 예산 편성 절차 점검을 요구함. - **교육청 국감, 교육재정 성과 공개·미래교육 쟁점** ·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맞춰 교육청 예산 운용 성과를 평가·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고의숙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교육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고 답함. · 미래교육 경쟁력 질의에 고 교육감은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 운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올해 초등학교 31곳의 학생 수가 늘었고 이 중 23곳이 읍·면 작은학교라고 밝혔으며,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도 쟁점이 됨.
	사무감사 (성과)	- **제13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종료** ·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9일 강평을 끝으로 민선 9기 도정·교육행정 대상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공약 변경, 행정체제 개편 원점 재검토, BRT 계획 변경 등 정책 혼선과 지난해 지적사항 후속조치 미흡이 지적됨. · 질의가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추자해상풍력 등 전임 도정 정책에 집중되고 새 집행부가 주요 현안 결정을 미루면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11월 제456회 임시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쏠림. - **ICC 지난해 40억 적자·올해 목표 하향** · 김봉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880억원을 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가 2월 개관했지만 올해 매출 목표를 15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낮추고 기획 전시행사 목표도 8건에서 4건으로 줄였다고 지적함.

정치·행정	사무감사 (성과)	· ICC 매출은 2021년 77억원에서 2025년 168억원으로 늘었으나 운영비용이 148억원에서 208억원으로 늘어 지난해 40억원 적자가 났으며, 김 의원은 서울사무소 폐쇄와 조직·인사 잡음을 문제로 꼽고 3개년 경영 정상화 계획을 촉구함. **- 기업유치 보조금 3년간 자체 수혜 '0'** · 행감 종료 뒤 20일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기환 위원장은 투자기업 입지·설비지원 예산 19억원과 3억5000만원이 2년 연속 전액 미집행됐고, 국비 매칭 2곳을 빼면 최근 3년간 도 조례상 보조금 수혜기업이 없었다고 지적함. · 김 위원장은 보조금 확대보다 기업 집적화와 공동 시험·실증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고, 강명균 의원은 4개 해외사무소 직원 14명 인건비로 연간 약 9억9292만원이 드는 만큼 수출계약·투자유치 등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함.
	에너지 (전환)	**- 분산에너지 특화 공모 연속 선정…국비 98억** ·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7월·9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과제에 모두 선정돼 국비 98억원을 확보했으며, 1차 과제인 전기차-전력망 연계(V2G) 실증 차량을 60대에서 100대로 늘리고자 도민 참여자 4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임. · 국비 78억원이 투입되는 2차 과제는 히트펌프 보급 가구 중 10여 가구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제로주택 실증과 마을 유휴부지 공유형 태양광·ESS 연계, 분산에너지 요금제 실증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연계 가상발전소도 실증함.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유령 센터' 전락 지적** · 한권 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앞두고 2025년 2월 개소한 분산에너지지원센터가 현판이 철거되고 조직·공간·인력·예산이 없는 '유령 센터'가 됐다며 보여주기식 졸속 개소를 비판함. · 한 의원은 분산에너지과 사무분장에 특별법이 정한 상담·창업보육·기업지원 기능이 빠져 있다며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 등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고,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별도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함. **- 국회 기후위에 에너지전환 제도개선 건의** · 위성곤 지사는 20일 구좌읍 행원리 에너지누리마당에서 국정감사 현장방문차 제주를 찾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의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3GW 규모 추자해상풍력 반영과 국가 계통연계, ESS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재정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방문단은 21일까지 도내 시설 8곳을 둘러볼 예정임.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내국인), 축제(가을), 창업(청년), 여행(일본), 농가(농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내국인)**	**- 내국인 관광객 감소 확대…씀씀이도 위축** ·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9월 관광객은 114만3000명으로 3만9000명 줄었으며, 외국인은 3만9000명 늘었지만 내국인은 88만5000명으로 7만8000명 감소해 여행 수요 위축과 국내선 감편 영향으로 감소폭이 다시 커짐. · 제주데이터허브의 BC카드 분석에서 9월 내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금액은 365억원으로 12.7% 줄어 관광객 수 감소율을 웃돈 반면, 중국인 관광객 이용금액은 15억8000만원으로 19.4% 늘었고 1인당 하루 이용액은 내국인의 2배를 넘음. **- 롯데관광개발 크루즈 외국인 유치 10만명 돌파** ·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9월 말 기준 크루즈 인바운드 누적 유치 인원이 10만3979명으로 지난해 연간 5만명보다 약 108% 늘었다고 밝혔으며, 유치 인원은 2023년 2만4000명, 2024년 3만8000명에서 해마다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기항지별로는 부산이 약 6만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약 3만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 1만1000여 명, 여수 2800여 명 순이었고, 선사별로는 로얄캐리비안이 약 5만2000명으로 전체 방한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경제·관광	관광객 (내국인)	**- 전국체전 특수 기대에도 하늘길 좁아 관광객 감소** · 제주도관광협회는 전국체전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사업체의 불법·불공정 영업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신속 대응과 관광 홍보관, 탐나는장터 최대 40% 할인 등 선수단과 동반가족, 응원단 맞이 수용태세를 강화함. · 그러나 제주공항의 15~18일 국내선 운항은 1745편으로 4.5%, 공급좌석은 33만2743석으로 10.6% 줄었고, 관광협회 집계 16~18일 관광객도 잠정 12만6724명으로 6.7% 감소해 소상공인들이 특수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축제 (가을)	**- 탑동 '섬夜시즌' 1만5000명 몰려 성료** ·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17~18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연 '2026 원도심 야간여행 섬夜시즌' 축제에 주최 측 잠정 집계 1만5000명이 찾았으며, 소유·장민호 콘서트와 DJ 프로그램, 밤바다 위 불꽃 퍼포먼스 등이 이어짐. · 산지로와 동문시장, 칠성로 상가를 누빈 '섬야 나이트워크' 완주자에게 탐나는전 1만원권을 지급하고 소비 영수증을 원도심 상권 전용 쿠폰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운영했으며, 도민·관광객 200여 명은 플로깅 '줍젠'에 참여함. **- 새별오름 도새기축제에 5만여 명 방문** · 제주양돈농협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제주도새기축제'가 17~18일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맛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려 주최 측 추산 도민과 관광객 5만여 명이 찾음. · 방문객들은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 시식과 수육·고기국수·몸국 식당, 노라조·다이나믹 듀오 공연 등을 즐겼으며, 제주양돈농협은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47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현장 헌혈 캠페인도 진행함. **- 8개 마을 잇는 제10회 제주밭담축제 개막** ·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를 알리는 '2026년 제10회 제주밭담축제'가 18일 개막해 11월 1일까지 15일간 한림읍 동명리·귀덕1리, 구좌읍 월정리·평대리 등 8개 밭담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음. · 올해는 한 장소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마을 연계형·체류형 축제로 전환해 '제주밭담여권' 스탬프 투어와 마을별 체험, 식당·숙박 할인을 운영하며, 11월 1일 옹포천 어울공원에서 탐험대 완주 행사와 돌담 쌓기 체험 등을 열 예정임.
	창업 (청년)	**- 2차 '모두의 창업' 제주서 1517건 도전**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제주에서 1기 모집 1184건보다 약 28% 늘어난 1517건이 접수됐으며, 로컬 트랙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625건, 일반·기술 트랙은 제주대 창업보육센터 572건 등 892건이 몰림. · 제주권역에서는 일반·기술 트랙 100명과 로컬 트랙 125명 등 225명이 1라운드에 진출해 20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사업화 지원을 단계적으로 받으며, 전국 1라운드 선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65.3%임. **- 제주 스타트업 4곳 팁스 동시 선정**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잇뉴, 크로스컴바인, 맘꽃, 새로핌 등 4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R&D 일반트랙에 선정돼 총 32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차수 4개사 동시 선정은 처음임. · 선정기업은 2년간 각 8억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 비R&D 지원 기회를 얻어 방문 예측 AI 엔진, AI 온실 제어 등을 개발하며, 도

경제·관광	창업 (청년)	와 센터는 4년간 국비 600억원 규모 창업도시 조성 공모도 준비 중임. **- 공무원연금공단, 24일 제주청년 페스타** ·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은 24일 서귀포시 제주본사에서 '제주청년 창업·취업 지원'을 주제로 '2026 GEPSTAY: 제주청년 페스타'를 열 예정이며, JDC와 제주더큰내일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등 6개 유관기관이 함께함. · 행사장에는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홍보·체험·판매 부스가 마련되고 참여기관 간 청년 정착 지원 업무협약,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창업기업 기술보호교육,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등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여행 (일본)	**- 일본 사가·도쿄서 치유·걷기여행 홍보** · 제주도는 17~18일 일본 사가현 '2026 사가 최고 페스타'와 18일 도쿄 '한큐 하이킹 페어 2026'에 참가해 자연 속 치유여행(웰니스)과 걷기여행(하이킹)을 주제로 현지 소비자에게 제주관광을 홍보함. · 사가현에서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으로 주말에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임을 알리며 동백오일 마사지 체험을 운영했고, 도쿄에서는 오름과 한라산, 올레길 등 걸어서 즐기는 자연경관을 소개해 주말 치유여행과 친환경 걷기 여행을 알림. **- 제주공항 국제선 300만명 돌파…일본 노선 급증**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의 국제선 여객이 10일 기준 303만1529명으로 지난해 연간 302만9280명을 넘어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했으며, 1~9월 일본 노선은 21만6000명으로 59.6%, 대만은 49만5000명으로 60.1% 늘어남. · 중국 노선은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205만3936명으로 17.3% 늘었고 국제선 운항은 1만4501편에서 1만8023편으로 24.3%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운항을 재개한 후쿠오카 노선과 정저우·옌지 신규 노선도 증가세에 기여함. **- 인천 송도 제주관광 팝업에 3만명 방문**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7~18일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분수광장에서 가을시즌 관광 홍보 팝업 '더-제주 in 송도, 제주가 왔송도!'를 열어 제주-인천 노선 이용 활성화와 수도권 잠재 관광객의 제주 여행 수요 확대를 꾀함. · 행사장은 로컬체험·로컬미식·로컬문화 등 3개 존으로 꾸며져 이틀간 3만여 명이 찾았으며, 스탬프 투어 참가자에게 탐나는전과 숙박권 등 경품을 제공하고 '더-제주 포시즌' 캠페인과 여행 멤버십 '나우다',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소개함.
	농가 (농업)	**- 레드향 열과 피해 급증…보험 가입 3.6배** · 문대림 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감류 열과 피해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가입 농가가 지난해 446농가에서 1599농가로 3.6배 늘어 도내 만감류 재배 농가의 84.4%에 달함. · 올해 가입 농지 1913곳 중 1730곳에서 사고가 접수돼 접수율이 90.4%에 달했고 대부분 열과 피해로 파악됐으며, 보험금은 최종 손해평가를 거쳐 내년 3~5월 지급될 예정으로 손해평가와 지급 절차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J-농정자문위' 출범…비전 2035 준비** · 제주도는 14일 기후변화와 고령화, AI·디지털 전환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3년부터 운영한 미래농업위원회를 재편한 'J-농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농업·디지털 분야 전문가 등 26명이 참여해 2027년 3월까지 운영됨.

경제·관광	**농가 (농업)**	· 위원회는 AI 스마트농업, 식품가공 육성, 농산물 유통 혁신, 청정축산 등 4개 분과에서 민선 9기 농정공약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2027년 3월 성과보고회에서 '제주 농업 미래 비전 2035'를 발표해 정책·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제주시, 영세·청년 농가 경영부담 완화 지원** · 제주시는 소농·고령농 등 영세 농업인을 위해 31억2000만원을 들여 813농가에 암반 제거, 소형 농기계, 저온저장고, 육묘장,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등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685농가가 완료함.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차량(도로), 연구(공동), 학생(보호), 병원(이송), 전국체육대회(선수)**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table>
<tr><td rowspan="2">지역·사회</td><td>차량
(도로)</td><td>- 평화로 차량 12대 연쇄 추돌…16명 부상
· 1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무수천사거리 인근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와 1t 트럭, 승합차 등 차량 12대가 잇따라 추돌해 6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16명이 다침.
· 교통정보센터는 CCTV 확인 결과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제주시 방면 1·2차로가 한때 전면 통제되면서 약 1시간40분 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임.
- 5·16도로 3중 충돌·강풍 나무 전도 잇따라
· 15일 오후 6시24분께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 인근 5·16도로에서 SUV와 승용차, 택시 등 차량 3대가 충돌해 택시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통제됨.
· 18일 오후 2시54분께에는 중산간 강풍으로 5·16도로 숲터널 구간 도로변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경찰은 교래리 입구와 서성로 입구에서 우회 조치를 했으며 오후 4시2분께 안전조치가 끝나 통행이 재개됨.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5대 추가 설치
· 제주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오라초등학교 주변 4곳과 애월읍 하귀 일대 1곳 등 5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하며, 오라초 일대는 인구 밀집도와 차량 통행량이 높아 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음.
· 설치 공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내년 1월 계도와 홍보를 거쳐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고, 동지역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됨.</td></tr>
<tr><td>연구
(공동)</td><td>- 제주 용암 사이 붉은 실트층, 황사 기원 규명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국립경국대 정기영 교수 연구팀의 공동연구 결과, 제주 용암층 사이 붉은 퇴적층이 중국 북서부와 몽골 남부 등 아시아 건조지역에서 날아온 황사 물질과 제주 화산물질이 섞여 쌓인 층으로 밝혀짐.
· '붉은 실트층'으로 명명된 퇴적층은 해안 저지대에서 한라산 고지대까지 반복 확인되며 한랭·건조기 형성층은 풍화가 약하고 온난·습윤기 형성층은 풍화가 커, 화산활동 휴지기와 아시아 먼지 유입, 기후변화를 기록한 지질 아카이브로 평가됨.
- 해양바이오 활용 파킨슨병 공동연구 추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일 제주연구소에서 파킨슨병 환자 자신의 세포로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해 이식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하버드 의대 김광수 교수를 초청해 줄기세포 치료와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을 논의함.</td></tr>
</table>

지역·사회	연구 (공동)	· KIOST 제주연구소는 해양생물에서 줄기세포 증식·분화를 조절할 물질을 찾는 연구를 진행 중으로 김 교수의 연구 성과와 연계해 신경퇴행성 질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실제 치료 활용에는 추가 효능 검증이 필요한 단계임. **- 제주대-인하대 협정…AI·우주항공 공동연구** · 제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19일 제주대 산학협력관에서 학술·학점교류 협정을 맺고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교육·연구 자원 공동 활용과 공동 교육·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협정은 항공우주·AI 분야 교육부터 취업, 재직자 역량 강화, 지역 정주까지 잇는 초광역 인재성장 모델인 제3회 'A2CL Summit'과 연계됐으며, 이어진 분과 세미나에서는 제주한라대 등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함.
	학생 (보호)	**- 영주고 공사 피해, 행감·교총서 대책 촉구** ·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희순 의원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영주고 학생의 학습권·건강권 침해 대응을 따지자 최은희 부교육감은 협의체 정례화와 이행 점검 부족을 인정하고 협의 체계 정비를 약속함. ·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9일 학생 505명 대상 조사에서 74.7%가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한 점을 들어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준공업지역이라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 한계를 지적하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교육활동 보호·위기학생 지원, 공통 과제로** · 제주도교육청이 '2027 제주교육' 수립을 위해 학생 714명, 교직원 1308명, 도민 1007명 등 3029명을 조사한 결과 최우선 과제로 학생은 진로·진학·취업교육, 교직원은 학력·문해력 향상, 도민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꼽음. ·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학생 28.85%, 교직원 34.75%, 도민 18.4%가 꼽았고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도 세 집단 모두 응답이 높았으며, 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출범을 앞두고 15일 회복 중심 보호 체계 토론회를 개최함. **- 학생선수 234명 전국체전 출전…안전 지원** ·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제주 학생선수 234명이 18세 이하부 32개 종목에 출전하며, 도교육청은 출전학교 강화훈련비를 지원하고 대회 기간 상황실과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살핌. · 도교육청은 학교 경기장 12곳의 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을 마치고 34개교 1720명으로 학생 서포터즈 동아리를 구성했으며, 사전경기에서는 사이클 여자 18세 이하부 금메달 3개를 따는 등 제주 학생선수단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임.
	병원 (이송)	**- 체전 참가 감독 이송 중 심정지…응급처치로 회복** · 19일 오전 9시27분께 제주시 용담1동 한 호텔 앞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차 제주를 찾은 50대 선수단 감독이 흉통을 호소해 출동한 119구급대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던 중 오전 9시54분께 심정지가 발생함. · 구급대원들이 즉시 응급처치에 나서 2분 만인 오전 9시56분께 자발순환이 회복됐으며, 감독은 오전 10시1분께 병원에 도착해 의식과 호흡이 회복된 상태로 의료진에 인계됐고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음. **- 추자·우도·해상 응급환자 이송 잇따라**

지역·사회	병원 (이송)	· 16일 새벽 추자면 영흥리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80대 여성이 심부전 의심으로 소방헬기 '한라매'를 통해 도내 종합병원에 이송됐고, 20일 새벽 우도에서 경련과 의식저하를 보인 60대 여성은 해경 연안구조정과 119구급대로 병원에 옮겨짐. · 17일 오후 8시25분께 서귀포 남쪽 약 270㎞ 해상을 항해하던 6만885t급 화물선에서 필리핀 국적 30대 선원이 맹장염 의심 증상을 보여, 해경은 서귀포항 인근에 온 선박에서 연안구조정으로 선원을 옮겨 18일 오전 병원으로 이송함.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앞두고 업계 난색**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요양병원들은 선정 기준과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과 간병인 직접 고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음. ·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들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의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나, 도내 10곳 중 100병상 이상·적정성 평가 1~2등급은 2곳, 3등급까지 인정해도 6곳에 그침.
	전국체육대회 (선수)	**- 제107회 전국체전 12년 만에 제주서 개막**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간 도내 68곳과 도외 6곳 등 74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으로 열리며, 선수 1만9576명과 임원 9468명, 재외선수단 1555명 등 3만599명이 참가함. · 개회식은 '위대한 숨'을 주제로 열려 유도 국가대표 이현지 선수가 최종 성화를 점화했으며, 전국체전 최초로 NFT 디지털 티켓을 도입했고 제주도는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꾸려 경기장 운영과 선수단 이동, 관람객 안전을 관리함. **- 개막일 제주공항 항공편 무더기 지연 논란** · 전국체전 개막일인 16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편 5편이 결항되고 출발 100여 편과 도착 120여 편이 지연됐으며, 김포·김해행 일부 항공편은 야간 운항 제한에 걸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으나 항공사들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임. ·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공역 통제가 원인이라는 의혹에 국토교통부는 19일 설명자료에서 오전부터 누적된 연결 지연의 영향이 컸고 전용기 이륙을 위한 통제는 10여 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지 못한 점을 사과함.
	전국체육대회 (선수)	**- 선수단 식중독 신속검사·경기력 현장 지원**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회 기간인 16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해 선수단 내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약 5시간 만에 검사하고 역학조사와 연계함. ·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16일 개회 이후 6개 지원팀이 22개 종목 제주 선수들의 테이핑과 마사지, 얼음찜질 등 컨디션 관리와 회복을 돕고 있으며, 센터 이용 선수는 올해 9월까지 3115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94%에 달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